

대중성의 확대와 변형

— 1950년대 박계주의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장 미 영(전주대)

〈목 차〉

- | | |
|------------------------|--------------------|
| 1. 박계주와 1950년대 저널리즘 | 4. 옥시덴탈리즘과 대중성의 변형 |
| 2. 집합기억의 구성과 대중성의 확대 | 5. 맺음말 |
| 3. 심판과 송덕을 통한 집합기억의 재편 | |

1. 박계주와 1950년대 저널리즘

이 글의 목적은 1950년대 신문연재소설이 포착했던 당대의 관심사를 통해 그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는 한편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저널리즘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문학이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대와 예술을 어떻게 연관 지었는지 그 매개 방식을 구명하는 데 있다. 주요 분석 텍스트는 「구원의 정화」(<경향신문>, 1954. 3. 1.~1954. 9. 30.), 「별아 내 가슴에」(<서울신문>, 1954. 11. 2.~1955. 5. 2.), 「자나깨나」(<연합신문>, 1956. 10.~1957. 4.), 「대지의 성좌」(<동아일보>, 1957. 12.~1958. 10.), 「장미와 태양」(<경향신문>, 1958. 12.~1959. 9.) 등 박계주의 장편소설로, 주로 1950년대 주요 중앙 일간지에 연재했던 작품들이다.

박계주는 다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반향이 큰 작품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대중 독자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소위 인기 작가였다. 1938년 10

월 매일신보 현상모집에 당선된 장편소설 『순애보』는 1939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후 1945년까지 47판을 찍고도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출판사상 기록적인 베스트셀러 소설로 군림했다.¹⁾ 뿐만 아니라 『순애보』(1957, 한형모 감독 김의향, 성소민, 이빈화 주연, 1968, 김수용 감독, 태현실, 윤정희, 신성일 주연)를 비롯하여 『구원의 정화』(1956, 이만홍 감독, 한은진, 윤인자 주연), 『별아 내 가슴에』(1958, 홍성기 감독, 김지미, 이민 주연), 『자나 깨나』(1959, 홍성기 감독, 김동원, 김지미 주연), 『대지의 성좌』(1963, 홍성기, 박찬 감독, 김지미, 최무룡 주연) 등의 신문연재소설들은 영화화되어서도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중 박계주 원작, 홍성기 감독의 영화 <별아 내 가슴에>는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당시로서는 빅 히트 영화로 추앙받을 정도의 흥행작이었다.²⁾ 이처럼 꾸준히 인기를 누렸던 박계주의 대중소설작가로서의 성공은 195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대중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당대 신문 저널리즘은 정치권력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외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생존의 활로를 모색해야 했기 때문에 다분히 상업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연재소설은 신문의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주력 상품으로 기능했다. 신문연재소설이 신문의 시장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박계주는 흥미성과 오락성을 지니면서 나름의 상상성을 가진 작가로 평가되면서 대중 독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한국근대문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이광수가 박계주의 『순애보』를 언급하면서 ‘재미있는 소설, 문장이 유려한 소설은 암만이라도 있을 것이거니와 전 인류의 근본문제-개인생활의, 가정생활의, 국가생활의, 세계평화의 근본문제-를 포착하려는 소설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박 군의 『순애보』는 이러한 부류의 소설의 하나다.’라고 높이 평가한 점³⁾ 이후 박계주 소설을 바라보는 대중 독자의 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사적 측면에서 볼 때 1950년대는 그 이전 시대와 달리 본격/대중의 문

1) 신동한, 『박계주의 작품세계: 장편 『순애보』를 중심으로』, 『순애보』, 일신서적출판사, 1999, 406면.

2) 정중화, 『영화에 미친 남자』, 맑은소리, 2006, 276면.

3) 신동한, 앞의 책, 407-408면.

학 노선이 선명하게 분할되던 시기다. 잡지 중심의 본격문학이 예술성을 앞세워, 대중성을 지향하는 신문연재소설과 거리를 두면서 소설가들도 본격문학과 대중문학 중 어느 하나의 노선을 선택하여 차별화된 글쓰기를 지향해야 했다. 특히 1955년, 문단의 원로로 예우되던 김팔봉이 서울신문으로부터 독자들의 호응이 격감되었다는 이유로 신문소설의 연재 중지를 통보받은 사건을 필두로 신문사와 문단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작가들은 더욱 어느 한 방향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밖에 없었다.⁴⁾ 신문소설에 대한 배제가 점차 강화되는 문단의 엄격한 흐름 속에서 박계주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신문 중심의 대중 지향적인 흥미 위주의 소설에 치우쳐 있어 본격소설보다는 대중소설작가로 구분되었다. 그 결과 신문과 영화를 통해 당대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박계주도 냉정한 문단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한국문단으로부터 이렇다 할 주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단의 차별적 구분 짓기는 박계주 소설에 대한 학계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대중문학을 폄하하는 문단과 대중문학에 대해 부정적인 학계의 시선은 결과적으로 박계주 소설 연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박계주는 본격문학연구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다. 그간 박계주 소설 연구는 「순애보」 한 작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기독교문학 또는 이민문학으로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인기 작품으로 막강한 대중적 영향력을 과시했던 박계주의 의욕적인 작가활동에 비해 박계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빈약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박계주 소설의 대중성을 단순히 ‘저급한’ 대중소설 차원이 아니라 ‘시의성 높은’ 신문소설이라는 관점으로 전이시켜 바라본다면 필연적으로 그 외연에 존재하는 ‘대중’과 역사적 의미의 ‘현재성’ 또는 사회적 의미의 ‘시사성’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박계주의 대중적 소통 방식이 예민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는 1950년대에 접어들어 쇠신에 주력하고 새롭게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신문연재소설의 대중성 확보 전략을 밝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독해는 박계주 소설에서 압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기독교적

4)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 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261-267면.

어법의 의미와 그 밀도 또한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함으로써 당대의 대중과 대중소설이 지향했던 사상사적 이념태를 새롭게 조망하는 관점이 될 것이다.

2. 집합기억의 구성과 대중성의 확대

신문은 그 속성상 당대의 차원에서 시급하게 인식되는 문제나, 유행, 정책 등 시의성 높은 정보를 가장 빨리 제공하는 매체이기에 그에 실리는 신문연재소설 또한 단행본이나 잡지 등 다른 형태의 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소설에 비해 현재성과 시사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신문이 불특정 다수라는 온갖 계층을 독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신문연재소설도 매우 넓은 범위의 사회계층 사람들을 아우르는 당대의 평균적인 욕구와 동질적인 눈높이에 맞춰 누구에게나 친숙한 공식적인 상징과 전형적인 신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박계주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1950년대 한국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폭력 속에서 죽음과 이별, 생사불명의 아픔이 개개인에게 생생한 심리적 충격으로 기억되는 한편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혼란으로 피폐해진 삶의 극복을 위해 사회 통합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박계주의 신문연재소설은 이러한 대중의 아픔과 갈망에 부합하는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소재화하여 집합기억을 구성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이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Émile Durkheim)으로부터 시작되어 1925년 기억사회학을 주장한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에 의해 구체화된 개념으로, 개인의 기억에 앞선 또는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기억이 각종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상징적 기초로 작동하는 기제이다. 알박스(Maurice Halbwachs)에 따르면, 기억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집합기억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있는 집단의 지원을 받으며 현재의 관점이나 필요에 따라 과거를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재구성하는 적극적이고 구성적인 과정인 동시에 과거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재서술하는 현재의 활동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집합기억은 영원한 진화 과정에 있고, 조작되거나 전유되기 쉬우며, 잠잠하다가 주기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⁵⁾

박계주는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1860년대의 구한말 사회(『구원의 정화』)나 국가가 부재했던 일제 강점기(『대지의 성좌』)를 비롯하여, 6·25 전란 직후(『자나깨나』, 『별아 내 가슴에』)나 이승만 정권 말기(『장미와 태양』) 등 시간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시대를 작품의 배경으로 끌어들이어 운명공동체로서의 민족을 부각시키고 있다. 박계주 소설에서 다루지고 있는 시대는 이미 대중에게 민족의 공통된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는 국가의 위기 상황이었던 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민족 차원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상황의 동질성으로 말미암아 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정체성 의식을 구축함으로써 집합기억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박계주 소설에서 민족은 국가의 공백을 채워주는 실체이자 공동운명체라는 신화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계주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대체로 개인과 사회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의 자전적 기억 내지 개인적 기억은 인간 본연의 내밀한 사적 기억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 또는 사회적 기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구원의 정화』는 구한말 기독교 박해사건과 연결되고 『별아 내 가슴에』와 『자나깨나』는 6·25 전란과 『대지의 성좌』는 항일독립군과 『장미와 태양』은 자유당의 몰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세기로 치면 십육 세기 전반기에 속하는 그 시절에 이미 조선인의 그리스도교 신자가 있었다는 말이나 또는 저 멀리 이태리 ‘로오마’로 유학을 간 소년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 아심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실로 처음 듣는 새로운 지식이었으며 너무도 좁은 세계에서 시야를 좁혀서 살았던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구원의 정화』)⁶⁾

이미혜는 지금 K여자대학 음악과에 다니는 학생이다. 그는 1950년 겨울에 연합군이 북한에서 철수작전을 할 때 갖은 고생과 모험을 하며 월남해 왔던

5) 이동후, 『국가주의 집합기억의 재생산』, 『언론과사회』 11권2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74면.

6) 박계주, 『구원의 정화』, 조광출판사, 1982, 215-216면.

것이다. 이미혜가 그 때를 회상하여 쓴 수기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중략)...

홍남향을 둘러싼 UN군의 함대는 전 포문을 열어서 죽음의 도시 함흥과 홍남에 철우(鐵雨)를 퍼 붓고 있었다. 이미 함흥 일각에 돌입한 중공군의 소총 소리와 기관총 소리는 우리 귀에도 들려 왔던 것이다.(『별아 내 가슴에』)⁷⁾

괴롭고 불안하고 지루하던 날과 날은 그런대로 흘러가서 구월 십오일에는 그렇게 고대하던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했으며 다시 그달 이십팔일에는 수도 서울이 완전히 탈환되었다.

인천에 연합군이 상륙되던 때에도 그리고 서울이 공산군 수중에서 완전히 수복되던 때에도 서명환과 영희는 서로 끌어안으며 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감격과 축복의 키스를 하곤 하였다.(『자나깨나』)⁸⁾

그들은 그 뒤부터 자주 만나게 되었으며 드디어는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백산과 함께 민족을 위한 지하운동에 가담했던 학생들은 백산의 연애를 찬성하지 않았다. 민족적 감정에서도 그러했거니와 자기들의 지하운동의비밀이 누설될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연애를 반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랬건만 백산은 동지들의 반대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사랑은 언어나 풍습이나 피부의 색깔에 구애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초월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의 애인 이계다 요시꼬를 누구보다도 믿었기 때문이었다.(『대지의 성좌』)⁹⁾

부산 정치파동사건, 증석불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사건, 사사오입의 개헌파동사건, 2.3파동사건, 불온문서 투입사건, 허다한 정치적 암살사건 이러한 정치적인 불법사건도 이루 매거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말단 행정의 각가지의 비행은 과거 이승만 정권의 십여 년간 신문 지상을 짝 채워 놓지 않았던가. 젊은 세대는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국민은 가정과 처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붕기 못한다 하더라도 피 끓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죽어 대령만 하며 그 썩은 정치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납고 썩은 구시대는 물러가라. 시대는 바야흐로 젊은이의 것이다. 이러한

7) 박계주, 『별아 내 가슴에』, 조광출판사, 1982, 15면.

8) 박계주, 『자나깨나』, 삼영출판사, 1975, 130면.

9) 박계주, 『대지의 성좌』, 삼영출판사, 1975, 35면.

생각은 비단 이영식이만 갖게 된 것은 아니다. 날로 부패의 극을 걸어가는 이 정권을 바라보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모두 개탄하며 속으로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다.(『장미와 태양』)¹⁰⁾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박계주 소설에서 개인의 자전적 기억은 역사적·사회적 사건을 심미적으로 구체화하고 고양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 안에는 어려운 시간대를 함께 거쳐 왔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이나 사회적 기억은 정체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같은 역사와 과거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 의해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역사의 현재성 덕분에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동시에 사건의 객관적 진실성 또한 그 사건을 바라보는 현재적 입장에서 항상 새롭게 방향 지워질 수 있다. 박계주 소설에서 주요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간도와 만주는 6·25전쟁 못지않은 이별과 죽음, 생사불명의 아픔을 야기했던 역사적 공간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에 위치한 중국 길림성 동남부 지역의 간도 공간은 한인 이주농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민족적 차원의 디아스포라 땅이었다. 게다가 중국의 동북 3성, 즉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구성된 만주는 민족 이산 뿐만 아니라 독립투사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실천적 운동을 펼치던 대(對)일본 항쟁 공간이다. 박계주 소설에 등장하는 간도와 만주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토대를 둔 ‘이산, 정착, 유리(遊離), 탈출, 방황으로 점철된 역사적, 현재적 장소’¹¹⁾의 상징공간으로 의미화 되고 있는 것이다.

1920년의 가을도 저물어가서 바야흐로 엄동이 닥쳐오려는 10월 하순이었다. 우리 이민 동포들의 온갖 슬프고 즐거웠던 낭만을 싣고 흐르는 해란강의 근원을 찾아 동북단으로 뻗은 대장백 산맥의 어구에 이르면 수성촌이라는 한촌이 있다.

다른 많은 개척이민 촌이나 마찬가지로 이 마을에도 중국인의 집은 한 채도

10) 박계주, 『장미와 태양』, 조광출판사, 1982, 367면.

11)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17면.

없었다. 사오십 리만 더 들어가면 지구가 생긴 이래 아직 인류의 침략이라고는 받아 보지 못한 듯한 처녀림의 대해가 끝없이 물결쳐 있고 고국 땅이 그리 멀지 않건만 무슨 유형지인양 몹시 고독했고 슬펐다.

그러나 조국을 동경하며 한숨짓는 향수와 함께 여기 화전시대에는 조국에서 맛보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유’였다.

침략자의 ‘게다’ 소리와 왜 나오리들의 칼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니와 중국인의 관청도 없었다. 같은 민족끼리 반목하고 분열하고 속이고 모함하는 그러한 교지 대신에 소박한 우애와 담담한 동정과 몽치는 피만이 있었다. 토지도 내 맘만 흘러 놓으면 내 땅이 되었고 나무도 내 힘만 들어 자르면 내 것이 되었으니 거기에 착취나 특권계급이 있을 수도 없었다. 거기에 신의와 우애와 상부상조가 법이 돼 있을 뿐이었다. 태극기는 바람에 너풀거렸으며 유명 무명의 망명객들로부터 애국연설을 듣는 아이들의 입에서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한 노래가 마음대로 불리어졌다.(『대지의 성좌』)¹²⁾

인용문에서 작가는 간도와 만주를 통해 민족의 역사적 수난사를 기술한다. 즉 간도와 만주가 민족적 상흔을 환기시키는 공간으로 의미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흔은 애국심을 이끌어내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 내지 민족을 통합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 『대지의 성좌』에서 언급되는 바, ‘유명 무명의 망명객들로부터 애국연설을 듣는 아이들의 입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장면은 국가 또는 민족이 이러한 상흔에 의해 기독교의 신(神)에 준하는 성상(聖像)의 대리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박계주는 과거의 기념비적 사건을 통해 그 사건이 후세에도 민족적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암시를 바탕으로 민족적 기억의 미래 지향적 측면을 표현해 내는데 주력한 작가다. 이는 연재가 끝나자마자 곧장 출간되었던 신문연재소설의 단행본 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원의 정화』는 일정시대인 태평양전쟁 중에 구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12) 박계주, 『대지의 성좌』, 삼영출판사, 1975, 9-10면.

때 왜정은 기독교에 대하여 야만적인 탄압을 하던 때요, 작가에게 대해서는 역사소설을 못 쓰게 하던 때여서 집필한다는 일에 생심도 내지 못했다가 이번 기회에 경향신문 지상에 만 7개월 동안 연재했었다.

...(중략)...

나도 이조말엽인 1860년대의 정치와 사회상을 배경하여 등장인물과 무대의 방원을 자유자재로 늘이기도 했고 줄이기도 했다.(『구원의 정화』)13)

『별아 내 가슴에』는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되어 시중의 화제가 되었으며 1958년에는 영화화되어 팬들의 인기를 모았던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박계주 선생의 처녀작이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순애보』와 또 한국독립군사라고도 할 장편소설 『대지의 성좌』와 더불어 길이 독자들에게 아낌을 받을 작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6.25의 전란을 겪고 난 어지러운 세대에서 순박하다고 할까,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인 소설가 현암을 둘러싼 순애의 여인들은 제목이 말해 주듯 애모하는 사람은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내 가슴에 간직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겠다.(『별아 내 가슴에』)14)

6.25전란 직후의 어지러운 사회 속에, 무서운 암의 요소가 득실거리는 가운데 자신의 영화와 안일을 버리고 오직 사랑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주인공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친구의 애인을 빼앗고 그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인간과, 연인을 잃고서도 그 원수의 아들을 맡아 기르는 숭고한 사랑의 정신-결국 사랑은 인간을 감화시키며 어떠한 고역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을 저자 박계주 선생은 말하고 있다.(『자나깨나』)15)

나는 이 소설을 제3부까지 구상했으며, 동아일보사와도 3부까지만 연재키로 하여 그 약속대로 3부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그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괴뢰 만주국이 서던 때까지를 제4부로, 중만 우리 광복군들이 해방을 맞던 때까지를 제5부로 하면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종결을 보게 되는데, 나는 지금 제4부, 5부를 구상 중이며, 그것이 발표될 날이 있기를 독자와 약속한다.

13) 박계주, 『구원의 정화』, 조광출판사, 1982, 서문.

14) 박계주, 『별아 내 가슴에』, 조광출판사, 1982, 서문.

15) 박계주, 『자나깨나』, 삼영출판사, 1975, 서문.

이 소설에 나오는 중국지명의 발음은 모두 우리 한국인들의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중략)...이것도 후세에 어떤 참고자료가 될 것 같다.

끝으로 이 소설을 쓸 때 틀리는 데가 없기 위해서 막대한 분량의 글(북간도 독립운동사)을 친히 써서 주신 당시의 독립투사 정제만 목사께와 시베리아의 사적을 자세히 서 주신 이지택 선생, 그리고 구두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북간도 국민회 부회장 서상용, 동창무 최운주, 북노군정서의 군인 여종을, 신흥군관학교의 교관 오광선, 홍범도 장군의 부하 모씨, 홍업단의 간부 이현익, 북극에 다녀온 임산(본명 임의택), 그리고 간도수도인 용정의 당시 사정을 말해 주신 정사무 제 선생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대지의 성좌』)16)

1959년 평화신문에 연재되었던 장편소설 『장미와 태양』은 저자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장편소설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작품 『장미와 태양』은 4.19 학생의거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던 때를 무대로 그 직후에 집필 된 것이다. 때문에 당시의 젊은 대학생들의 심증을 대변하고 있으며 자유당 간부인 아버지의 썩은 정신과는 달리 혁신적인 사상과 아울러 뜨거운 정열에 넘치는 삶을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다.(『장미와 태양』)17)

위 인용문에 제시된 각 단행본의 서문에서 살필 수 있는 바, 결과적으로 박계주 소설은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민족 신화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집합기억을 구성해 냄으로써 파편화된 대중들의 사고를 공동체적 사고로 전환시키려는 열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사고의 확대는 곧 대중성의 확대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박계주 소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심판과 송덕을 통한 집합기억의 재편

박계주 문학의 대중소설로서의 강점은 대중소설의 클리셰(Cliché)라 일컬

16) 박계주, 『대지의 성좌』, 삼영출판사, 1975, 서문.

17) 박계주, 『장미와 태양』, 조광출판사, 1982, 서문.

어지는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나 삼각관계의 연애 구도 또는 ‘비에 젖은 여인의 몸’과 같은 상투적인 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박계주의 소설은 대중 독자의 예측 가능한 세속적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익숙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선악 구도에서 악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은 당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구한말의 탐관오리(『구원의 정화』), 자유당 정권의 국회의원(『장미와 태양』), 일제 침략자(『대지의 성좌』), 아프레게르 여인(『별아 내 가슴에』), 타락한 사업가(『별아 내 가슴에』), 공산당, 국무위원, 국회의원, 낭녀(狼女)(『자나깨나』) 등이다. 이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탐욕으로 상대방의 의기(義氣)와 신념을 짓밟는다. 이때의 ‘의기’나 ‘신념’은 사적인 입신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어떠했던 간에 ‘민족을 위한’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공적인 것이었다. 이로써 부정적인 인물들은 국민 또는 민족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긍정적인 인물들은 공적으로 명망 높은 대의명분에 대해 내적인 일관성을 견지하는 사람들로 그려진다.

오늘 밤 이조판서 진우식 대감 댁 사랑에 모인 고관대작들은 모두 ‘지당제상(至當帝相)’이란 별명들을 가진 무골충 패들이었다. 임금의 발언이면 백성의 경우는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지위와 영달의 명백을 더 연장 시킬 양으로,

“네에, 지당한 말씀이온가 아뢰나이다.”

하여 무조건 복종에 훈 인등인 패들인 것이다.

게다가 매삭 받는 국녹으로는 일가친척은커녕 자기 권속들조차 먹이기에 도 급급하련만 공간마다 양곡과 필목이 가득 차 있었고 장 속에는 금은보화 그리고 산해진미는 상에서 떨어질 날이 없었다. 이렇듯 뇌물을 건어 들이기에 능수능난한 그들은 임금을 좌지우지 하듯 하는 임금의 외척들에게 아침 기부하기에 도 능수능난했던 것이다.

하기야 그들이 누구보다도 제일 높은 학식을 가졌던 것도 아니요 누구보다도 왕성한 애국심이나 백성을 공홀히 여기는 자애심을 가졌던 것도 아니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정치적 식견이나 행정적 수완을 가졌던 것도 아니언만 자기들 역시 뇌물과 아침으로 얻은 지위와 영달이고 보니 제 버릇 개에게 주라는 격으로 자기보다 낮은 벼슬아치들에게서와 백성들에게서 일찍이 자기

가 임금의 외척들에게 바쳤던 뇌물과 아침을 수십배하여 강요하곤 했던 것이다.(『구원의 정화』)¹⁸⁾

딸의 육체의 신록(新綠)이 부럽다기보다도 심술이 났다. 한 남편의 성실한 아내였을 때는 딸이 자라는 것이 그저 기뻛고 날로 용모가 피어나며 예뻐지는 것이 즐겁기만 하더니 남편이 납치당한 뒤에 유한마담들과 어울려 돌아가며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그의 딸의 젊음과 그 미(美)에마저 질투를 가져야만 하는 자신을 의식하려 들지는 않았다.(『별아 내 가슴에』)¹⁹⁾

금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 밑에서 늙은 낭녀(狼女)는 금례에게,

“너 돈 가진 것 있으면 내게 맡겨라. 시골과 달라서 여기선 쥐도 새도 모르게 잃는 수가 많단다.”

하여 금례 수중에 돈 한 푼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이쯤 되면 금례는 여관에도 갈 수 없고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으리라고 여겨 노파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자나깨나』)²⁰⁾

소위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더구나 행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까지 쥐고 흔드는 권력당의 간부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일은 손톱만큼도 없고 자기들의 권력의 연장과 어떻게 하면 일인독재자의 훌륭한 수족이 되어 백퍼센트의 영달을 누릴 것인가를 꿈꾸며 모의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장미와 태양』)²¹⁾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은 일제 침략자들처럼 민족 소멸의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부류 외에도 부패한 정치가, 타락한 유한마담, 집장촌의 창녀들처럼 민족공동체의 차원에서 미래에의 전망을 저해 또는 유보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경멸에 가까운 묘사는 신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듯 비교적 분명하게 직접적인 서

18) 박계주, 『구원의 정화』, 조광출판사, 1982, 13-14면.

19) 박계주, 『별아 내 가슴에』, 조광출판사, 1982, 116-117면.

20) 박계주, 『자나깨나』, 삼영출판사, 1975, 85-86면.

21) 박계주, 『장미와 태양』, 조광출판사, 1982, 66면.

술로 이들의 비행을 비난함으로써 단죄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이는 민족의 고통에 대한 울분을 부패한 지배 세력과 도덕적·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怨望)으로 투사함으로써 과편화된 민심의 방향을 정향시키도록 만든다. 이들을 단죄하는 레토릭은 표면적으로 민족의 단결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거부의 몸짓을 취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이들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 약진에 대한 소망을 담아낸다.

한편 이들과 대척적인 위치에 있는 선(善)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들은 주로 계급과 성별의 구분을 넘어 동포라는 테두리 내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악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인간 본연의 본능적인 한 개체로서의 자기 보존 욕망에 충실하다면 상대적으로 선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고통 받는 민족을 조감(鳥瞰)하고 기독교적 사랑과 이를 통한 구원을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이상향은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편협성을 지니지만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땅에 산재한 조선인들까지 민족의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을 띤다. 간도, 만주, 시베리아까지 확장된 이들의 범영토적 공동체 의식은 탈영토적 존재들을 개별적인 별개의 개체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한다.

그의 짐 속에서 남만 <서간도>에 산재한 각 독립단의 체계와 부서와 그 부서의 중요인물들의 명단 및 이력을 기록한 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인텔리인 왕표가 만주에서 투쟁하는 우리 독립운동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것에 유의하여 재남만 한인 독립운동사만이라도 쓰려고 재료를 수집하여 두었던 것이다.²²⁾

그날 백산은 왕표가 떠나기 전에 자기의 여생이 얼마 길지 않을 것을 깨달았음인지 이러한 말을 왕표에게 조용히 들려 주고 있었다. 사실은 순이에게 들으라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나는 말년에 한 가지의 일을 하려고 했네. 한국독립운동사-적어도 만주와 시베리아에서의 한인 독립사만이라도 기록으로 남겨 둘 의무를 느껴 왔었네.”²³⁾

22) 박계주, 『대지의 성좌』, 삼영출판사, 1975, 116면.

인용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도피, 망명, 이민, 추방 등의 형태로 조선이라는 영토 밖에 산재해 있는 이주민들 또한 마땅히 민족의 수난사에 포섭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강하게 내비치는 것이다. 이로써 오랫동안 배제되고 망각된 한인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환기되면서 그간 이들이 수행한 활동들-이상촌 건설, 실력양성 운동, 학교 설립, 항일 투쟁, 독립운동 등이 송덕의 대상으로 부상한다. 특히 『대지의 성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바, ‘재남만 한인 독립운동사’ 또는 ‘한국독립운동사’ 내지 ‘북간도 한인독립운동사’의 필요성을 운운하는 내포작가의 목소리는 탈영토적 한인 네트워크를 염두에 둔 민족 공동체론을 파생시키는 한편 송덕의 형식을 구체화시키려는 의지의 재현인 셈이다. 『대지의 성좌』 서문은 이러한 박계주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입증한다.

『대지의 성좌』는 1957년 11월부터 시작하여 근 1년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지금까지의 나의 소설 중에서는 가장 긴 소설이다. 신문 예고문에서도 말했거니와 대지라 함은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의 광활한 지역을 가리킴이며 성좌라 함은 그 넓은 대지를 진전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참담한 고초를 겪던 수많은 망명객, 순국열사, 젊은 독립군들과 그들의 뒷받침이 되어 주었던 이민동포들을 가리킴이다.

나는 이 소설을 씀에 있어서 구할 수 있는 사료는 물론 당시의 각 독립군 단체에서 활약하던 고령의 생존자들을 일일이 찾아 가장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집필하였다. 그렇게 이 소설은 사실에 충실했던 탓으로 받은 기록문학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기록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독립군단체들의 딱딱한 연혁들이 나올 때는 최소한으로 압축시키기에 무진 애를 썼다.²⁴⁾

서문(序文)을 통해 직접 언급되는 박계주의 이상적 민족공동체의 형상은 국가 차원의 보호 없이 본국 또는 타국의 영토에서 열악한 삶을 꾸려왔던 조선인들을 예우하고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국가를 구상하고 민족을 지키려 했던 민족주의자들의 치적을 기록화 함으로써 이미 목숨을 잃은 망자까지 그

23) 앞의 책, 312-313면.

24) 앞의 책, 서문.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한 송덕(頌德)은 민족을 위해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후세의 추모, 즉 민족 차원의 미래 후손들로부터까지 칭송을 유도해내려는 적극적인 추모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박계주는 원래 지배자들의 특권이었던 명예를 이름 없는 민족적 영웅에게 전이시켜 그들의 행위를 표창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해주는 송덕의 관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

박계주 소설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수혈’ 모티프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의미심장하다. 수혈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혈액을 나누어주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주입하여 보충하는 것이다. 작중에서 ‘수혈’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혈액을 나누어주는 행위로 묘사되고 있는데, 서사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기폭제 역할, 즉 사적인 삶을 지향하던 인물들이 당대 사회가 바랐음직한 이상적 공동체 건설의 일꾼으로 변신하게 하는 결정적 터닝 포인트로 작용한다. 이는 ‘수혈’이 사회진화론의 관점에서 민족 공동체주의를 자각한 지식인의 자발성과 신념의 실천성을 표상하는 상징적 이미지로 의미 부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수혈’은 민족공동체주의를 종교적 이상주의에 접목시켜 그 의미와 가치를 격상시키는 표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박계주가 제출한 기독교 편향의 민족주의 내지 민족 공동체주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해지면서 낭만성을 띠게 된다. 박계주 소설이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낭만성은 전후의 피폐한 정신적 궁핍을 보상하고 위무함으로써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들을 국가 또는 민족이라는 거대 집단으로 포섭하면서 도덕적으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계주 소설에 대한 대중 독자의 열광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바, 박계주 소설이 1950년대 당시 개별화된 국민들에게 응집과 단결의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4. 옥시덴탈리즘과 대중성의 변형

박계주 소설은 민족의 지도자 내지 지사(志士)들을 송덕하는 데 바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계주가 긍정적으로 형상화한 민족의 지도자는, 고통스럽거나 극복하기 쉽지 않은, 지난(至難)한 민족의 현재 시간을 미래

를 위해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으로 이끈 사람들이다. 이들의 실천성은 직접적으로는 조선인 집단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이전시대부터 제기되어왔던 민족적 실력양성 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계주는 이전 시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도산 안창호 식의 무실역행을 계승하고 있다기보다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교리를 실천 원리의 근거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안창호의 민족주의적 신념과는 차이가 있는 옥시덴탈리즘의 성향을 보인다.

박계주는 거의 모든 작품에 기독교 신앙을 내면화한 순교자 형상의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민족주의적 발상이 갖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세계주의이자 보편주의(cosmopolitanism)로 명명할 수 있는 인류 진보적 차원의 이상주의를 내보인다.

1951년 6월 어느 날, 한국에 처음 오게 된 ‘워-드·크렌즈’ 2등 상사(上士)는 그의 부대와 함께 서울역을 통과하게 되었다. 어떤 아이들은 기어 나와서 그들의 양상한 손을 내밀었다. 군인들은 주머니와 보따리를 함부로 뒤져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주었다. 사탕, 과자, 껌, 샌드위치……등등의 먹다 남은 것들이다.
 …(중략)…

전선에서 싸우던 크렌즈는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맡은 ‘UN 한국 민사 원호처’(UNCAACK)에 전속되어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별아 내 가슴에』)²⁵⁾

중국 여관에서 한잠 자고난 왕표는 오후 두 시 경에 요정 거리에 나갔다가 ‘영국덕이’에 있는 서양 선교사를 찾게 되었다.

속칭 ‘영국덕이’라는 곳은 용정 시내 동쪽 산에 선교사들의 사택인 양관들과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곳 구내는 일종의 조차지(租借地)와 같아서 일본 경찰의 출입은 못하게 돼 있었다.

…(중략)…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은 간도에 오면서 선착으로 장암촌의 집단학살사건부터 취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십시오, 나도 사진 박사 온 것이 있는데 부너지는 물론 노인들과 어린

25) 박계주, 『별아 내 가슴에』, 조광출판사, 1982, 420-422면.

아이들까지 학살했다는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비인도적인 야만 행위이므로 나는 우리 캐나다 선교회 본부에 이 사실을 낱낱이 보고할뿐더러 미국 국무성과 영국 정부에 알려 세계 여론을 일으킬 작정이요.”

...(중략)...선교사 버-커(박길)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내어 가지고 자기 자리에 되돌아와 앉으며,

“지금 전란으로 교통두절이 되다시피 돼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는 없고 또 지금 현재까지의 학살보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학살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소.”

하며 서류철을 펼친다.(『대지의 성좌』²⁶⁾)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박계주가 실천적으로 작품 속에 형상화한 세계 또는 보편은 미국, 미군, 영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회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당시, 물질적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범국가적 가치로 삼으면서 미국 영화에서 그려지는 미국식 라이프스타일을 ‘문화적’이라고 간주했던 세속적인 지배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박계주의 기독교 편향의식 또한 영·미식 가치와 신념을 지향하는 당대의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영합한 혐의가 짙다.

군사적,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전후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미국 문화는 만민평등의 민주주의와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에 있어 욕망의 환상체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의 한국 사회는 이러한 환상에 사로잡혀 미국을 매혹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까지 미국을 모방하고 추수하는 현상을 보인다.

일정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서 타자를 구성해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사물을 ‘표상(表象)’한다’고 할 수 있다. 표상이란 일정한 개념틀로 구성된 타자로서, 그것은 타자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성한다. 세상의 모든 사물 들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길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들이 부착되어 있다.

‘동양’은 ‘서양’의 표상이고, ‘서양’은 ‘동양’의 표상이다. 더 정확히 말해 ‘서양’은 ‘서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상이다. ‘서양’이라는 어

26) 앞의 책, 204-208면.

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서양’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곧 ‘서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어떤 지역이나 사람들, 문화를 표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는 ‘서양’에 대한 표상, 즉 ‘서양’의 이미지가 존재한다. 이것은 ‘동양’도 마찬가지이다. ‘동양’이 표상되면 그것에 맞춰져서 ‘서양’이 표상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동양’과 ‘서양’ 같은 식의 대립적 규정은 언제나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다.²⁷⁾

박계주 소설의 기독교 편향 의식은 이러한 서양 이미지, 즉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의 관점에서 재구될 필요가 있다. 작품으로 형상화된 기독교 의식이 당대 대중 독자에게 큰 저항 없이 수용되었다는 것은 미국식 삶과 그들이 믿는 종교를 인류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인류 보편적 신념처럼 절대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을 구원의 신, 즉 성스러운 대상으로까지 격상시켜 유사종교적 형태로까지 바라보았던 우리 사회의 옥시덴탈리즘적 시민 의식과 부합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박계주 소설에서 드러나는 기독교적 영향의 성격은 신앙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 차원의 신념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모호하게 진행된다가 종국에 이르러 ‘민족주의’ 개념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는 순교자 형상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기독교적 윤리 감각 위에 민족주의적 당위성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덧입힘으로써 숭고미를 유발한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강조되는 ‘사랑’, ‘봉사’, ‘희생’, ‘용서’ 등은 기독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 동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대한 기독교식의 환유적 관념이 싹틔음을 보여준다. 박계주 소설에서 일개 개인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랑’, ‘봉사’, ‘희생’, ‘용서’ 등은 공인으로서 요구되는 옥시덴탈리즘적 인성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박계주가 꿈꾸었던 올바른 삶의 정체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개별 존재자로서의 자기 현존만을 인식하는 삶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의 당위적 목적을 달성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박계주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태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사랑’, ‘봉사’, ‘희생’, ‘용서’가 없

27) 이정우, “19세기 제국주의 시선, 오리엔탈리즘”, 인터넷한겨레, 2005.1.26. (<http://www.hani.co.kr>) 참조

있기에 윤리적으로 쉽게 타락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적대 세력인 동시에 마땅히 타기해야 할 대상으로 관념화되었다.

반대로 박계주가 강조하는 ‘사랑’, ‘봉사’, ‘희생’, ‘용서’를 통해 자기 수양을 했던 사람들은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이국적 정조를 바탕으로 대중과 구분되는 ‘도덕가’, ‘지사가’ 등 민족의 지도자로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입증하는 관념체로 부상한다. 민족의 지도자는 인격적인 측면에서 세태의 변화나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내재적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6·25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에 대해 도덕적·윤리적 질서외식을 심어주려 했던 박계주의 지도자적 민족외식을 읽어낼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1950년대, 특히 전후에 연재된 박계주의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당대의 상황이 어떻게 수용되고 사회적 바람이 어떻게 투사되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소설 전반에 걸쳐 박계주는 민족의 단결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적대적 관념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들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 발전에 대한 소망을 담아냈다. 더 나아가 이들과 대척적인 위치에 있는 선(善)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들을 당대 사회에 팽배했던 세속적인 옥시덴탈리즘적 관념과 이상주의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교합하여 긍정적 관념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올바름’의 논리를 생성해냈다.

이처럼 박계주는 문학의 상품성을 확보하면서도 작가로서의 자신의 신념을 작품에 공명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준 소위 개념 있는 작가였다. 그 결과로서 박계주는 인기작가가 되었고 당대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이 큰 문학가로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박계주, 『대지의 성좌』, 삼영출판사, 1975.
박계주, 『별아 내 가슴에』, 조광출판사, 1982.
박계주, 『자나깨나』, 삼영출판사, 1975.
박계주, 『장미와 태양』, 조광출판사, 1982.
박계주, 『구원의 정화』, 조광출판사, 1982.

2. 논저

-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신동한, 『박계주의 작품세계: 장편 「순애보」를 중심으로』, 『순애보』, 일신서적출판사, 1999.
알라이다 아스만 저,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03.
이동후, 『국가주의 집합기억의 재생산』, 『언론과사회』 11권2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 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이정우, 『19세기 제국주의 시선, 오리엔탈리즘』, 인터넷한겨레, 2005. 1. 26. (<http://www.hani.co.kr>)
정중화, 『영화에 미친 남자』, 맑은소리, 2006.
정주아, 『한국 근대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국문초록】

본고는 1950년대 신문연재소설이 포착했던 당대의 관심사를 통해 그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는 한편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저널리즘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문학이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대와 예술을 어떻게 연관 지었는지 그 매개 방식을 구명하는 데 있다. 주요 분석 텍스트는 「구원의 정화」, 「별아내 가슴에」, 「자나깨나」, 「대지의 성과」, 「장미와 태양」 등 박계주의 장편소설로, 주로 1950년대 주요 중앙 일간지에 연재했던 작품들이다.

박계주 소설의 대중성을 단순히 ‘저급한’ 대중소설 차원이 아니라 ‘시의성 높은’ 신문소설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필연적으로 그 외연에 존재하는 ‘대중’과 역사적 의미의 ‘현재성’ 또는 사회적 의미의 ‘시사성’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박계주의 대중적 소통 방식이 예민하게 드러난다. 이는 1950년대에 접어들어 쇠신에 주력하고 새롭게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신문연재소설의 대중성 확보 전략을 밝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나아가 이러한 독해는 박계주 소설에서 압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기독교적 어법의 의미와 그 밀도 또한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함으로써 당대의 대중과 대중소설이 지향했던 사상사적 이념태를 새롭게 조망하는 관점이 된다.

주제어: 1950년대, 저널리즘, 집합기억, 대중성, 옥시덴탈리즘

【Abstracts】

Extension and modification of popularity

– focused on Park Kyeju’s serial novel on news paper

Jang, Mi-young

This study aims to closely look into the way of intermediation how the literature connected times and art in order to obtain the salability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journalism based on capitalism as well as to deduce the social meaning through the current interest captured by the serial novel on the news paper in 1950s.

Park Kyeju was a so called popular writer drove positive responses from the public readers by continuously publishing the novels which caused big social reflections. Besides, the serial novels made a big success in the movies. His success as a popular novelist can be an important reference to discuss the popularity of the serial novels on the news paper in 1950s.

At that time, news paper journalism had to focus on commercialization as it had to survive without outside’s support due to the struggle against the political power. The serial novels on the news paper acted as a major good to be able to obtain the readers. The serial novels could play a key role in the marketability of the news paper. In this atmosphere, Park Kyeju was regarded as a writer who had not only interest and amusement but also his own philosophy and achieved the readers’ enthusiastic responses.

If one can consider the popularity of Park Kyeju’s novel not as a mere ‘inferior’ popular novel, but as a ‘timely’ serial novel on the news paper, he

can find Park Kyeju's public communication skill under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public' existing externally and historical meaning's 'nowness' and social meaning's 'timeliness'. It can be a meaningful work discovering the news paper serial novels' strategy for obtaining the popularity.

Furthermore, this kind of reading is to be the viewpoint to newly look at the history of ideology the public and the popular novels at that time aimed for by providing the professional eye which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Christian expression and its density occupying the overwhelming majority in Park Kyeju's novels.

Keywords : 1950s, journalism, collective memory, popularity, Occidentalism

이 논문은 2012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7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